

\* 누락된 자료를 보충합니다. 편집부

10 .

## 1963년 중 민속학에서 거둔 성과\*

- 
- 
- 

1963년 중에 민속학에서는 일련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계속하였다.

(1) 우리 나라 혼인 풍습에 관한 연구(전 장석)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혼인 풍습의 전통을 밝힘과 동시에 우리 나라 혼인 형태의 유형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명하였다.

우선 우리 나라 혼인의 중요 형태들과 그 변천을 논한 부분에서는 우리 나라 혼인 형태의 분류 원칙과 기준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ㄱ) 물질적 보상 유무의 측면 ㄴ) 혈연관계의 측면 ㄷ) 혼인 생활의 거처 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우리 나라 혼인의 다양한 형식들을 체계화하고 그 발생, 발전, 소멸의 합법칙성을 천명하였다. 여기에서의 유상혼의 제 형태에 대한 분석과 유상혼의 기본 형식으로서의 “납폐(納幣)”의 본질과 그 특수 형태들인 데릴사위, 맞혼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과거 사회의 혼인의 계급적 성격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여기서의 동성 불혼의 유래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는 동성(동성 동본) 불혼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신라에서부터 고려 중기에 이르기까지도 동성혼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비난되지 않았다. 그런데서 우리 나라의 동성 불혼의 유래를 피상적으로 유교 사상의 영향

...

\* 『학계소식』, 『고고민속』 1963년 4호.

이 글은 도유호(『1963년 중 고고학에서 거둔 성과』), 황철산(『1963년 중 민속학에서 거둔 성과』)이 쓴 글 중에 황철산의 글을 보충한 것이다.

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동성 불혼은 선행한 시기의 씨족적  
족의 혼(族外婚)의 유습이며 그 유래가 오래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의 “처가살이 혼” 풍습을 통하여 본 신라 초기 가족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이  
논문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신라사에서 볼 수 있는 박, 석, 김 삼성 시조의  
출생이 혈연적 련계가 아니고 수양 관계로 되어 있는 것과 박, 석, 김 간에 이성계대(異性  
繼代)가 실시된 사실의 리면에는 그 어떤 수수께끼가 들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만족할 만 한 해석을 내린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민속학 상의 “외아자비 친권 - 아 봉크라드” 및 “처가살이 혼”  
리론의 도입과 “갈문왕(葛文王)”과 왕과의 척분 관계의 변천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박,  
석, 김 삼성 시조의 이성(異性)에 의한 피수양 설화는 “외아자비 친권”에 의한 외아자비의  
생질 양육의 유습으로, 친아버지가 아니라 외아자비가 친권을 행사한 민속에서부터 온  
것을 후세의 관념으로 합리적으로 운색한 것임을 론증하였다. 또 이성계대는 “처가살  
이 혼”에서부터 오는 사위, 외손들이 동일 가족에 속한 데서 온 것이라는 것을 론증하  
였다. 이것은 력사 과학의 한 분과로서의 민속학이 일반사 연구에 기여하여야 할 과업  
을 수행한 좋은 실례로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혼례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혼인 풍습의 중요 측면인 혼례식에  
대하여 그 력사적 변천을 개괄하고 그 구성과 절차, 갓춤새 등의 민속적 특성과 계급적  
본질을 해명하였는바 이것은 민족 유산을 옳은 관점에서 계승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조선 여자 옷의 변천에 관한 연구(최 원희)는 우리 나라 민족 옷 중의 여자 옷의 변화  
발전의 전 과정과 그 합법칙성을 해명함으로써 우리 나라 복식사 연구의 골간을 세워  
놓았으며 복식 연구 분야에 존재하던 많은 공백들을 일정하게 메꿀 수 있게 하였다.

우선 삼국 및 통합 신라 시기의 여자 옷을 론하였는데 이 시기에 관해서는 종래 비  
교적 연구가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문헌 자료, 벽화 자료 및 출토  
유물 자료를 주도 면밀하게 연구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에 관해서도 적지 않게 새로운  
측면을 개척하였다. 레컨대 이 시기의 기본 옷 중에서 전통적으로 고유한 것을 갈라  
내어 그것의 변천 및 년대를 밝힌 것이라던가 종래 그 정체를 잘 알지 못 하였던 『삼  
국사기』 색복조에 보이는 표의(表衣, 內衣)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내린 것 같은 것은

이 시기 복식 문제 해명에서 새로운 측면을 개척한 것으로 된다.

다음으로 고려 시기의 여자 옷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 시기의 긴 저고리에서부터 리조 시기의 짙은 저고리에로의 변화가 어떤 리유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종래 론자들의 견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견해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한 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사실 종래 고려 시기의 저고리가 길었는지 짧았는지조차 명확히 알려지지 못 한 것이 사실이였으며 그런데서 저고리가 짧아진 것이 통합 신라 시기라느니 고려 말기라느니 하는 설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종래의 견해들의 부당성을 론박한 다음 최소한 문헌 자료들을 분석 종합하는 방법과 선행한 시기의 옷과 다음 시기의 옷을 대비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 나라 민족 옷에서 첫 번째의 큰 변화 즉 긴 저고리에서부터 짧은 저고리에로의 변화가 통합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기간에 이루어진 것임을 론하였다. 또 이 시기는 그 전 시기와는 달리 남자 옷과 여자 옷이 옷 전반에서 확연히 구별되었음을 구체적 자료를 들어 지적하고 그렇게 된 원인을 밝혔다.

그 다음의 리조 시기의 여자 옷 연구에서는 특히 기본 옷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 및 그 변천을 고찰함과 동시에 옷의 균형미, 계절적 변화의 반영, 계급 신분 및 연령에 의한 구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함으로써 조선 옷의 특성을 명확히 밝혔다. 또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우리 나라 기본 옷에서 두 번째의 큰 변화 즉 극단으로 짧아졌던 저고리가 일정하게 길어지고 극단으로 길어졌던 치마가 일정하게 짧아진 변화가 일어난 것과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자본주의적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함에 따라 봉건적 신분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한 데 있었음을 정당하게 론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 나라 여자 옷은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즉 종래 론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당 나라나 몽고의 영향에 의하여 변화한 것이 아니라 자체 내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의하여 변화 발전한 것이며 한 편 그것은 옷 자체의 완성을 위한 요구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함을 밝혔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현 시기 우리 나라 여자 옷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실천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담겨 있다.

이상 두 논문은 력사학 학사 학위 논문으로 공개 심사에 회부하여 통과되었다.

(3) 우리 나라 고대 종족에 관한 연구(황철산)는 문헌 사료, 고고학적 및 민속학적 자료를 리용하여 우리의 조상으로 된 고대 종족들의 기원 문제 및 그들 상호 간의 친연 관계를 론술하였다. 이 문제는 문헌, 고고학, 민속학이 단독으로 결론을 내릴 성격의 것이 못 되며 또 이 부문 연구가 아직 청소한 조건에서 물론 필자의 견해가 결론적인 성질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이 문제 연구를 심화함에 있어서 일정하게 도움으로 될 것이다.

(4) 이 밖에 목공예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정 시경), “미국식 생활 양식”의 반동적 본질과 그것이 남조선 인민의 사회 생활에 미친 후과(전 장석)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가 초보적으로 진행되었다.

(5) 민속학 연구실에서 편집한 『조선의 민속 놀이』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고귀한 민속놀이를 발굴하여 평이하고 흥미 있게 서술된 것으로 후대들로 하여금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데와 그들을 애국주의, 집단주의 정신과 불굴의 투지와 고상한 정서로 교양하는 데 적지 않게 이바지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의 수많은 민속 놀이 중에서 가무 놀이 16 종, 경기 놀이 13 종, 겨루기 놀이 13 종, 아동 놀이 19 종을 선택 서술하였는바 그 집필에는 해당 놀이에 대하여 체험을 가졌거나 또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분 30여 명이 망라되어 집필하였다. 또한 그것은 가능한 한 해당 놀이의 유래, 변천, 분포, 방법 등을 순서에 구애함이 없이 적절히 포함시키는 방향에서 서술한 것으로 흥미 있게 읽으면서도 해당 놀이에 대한 통일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게끔 고려된 것이다(황철산).